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청소년을 보는 성인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한 승 희**
이 용 교
이 혜 연
맹 영 임

- I. 서 언
- II. 연구의 방법
- III. 연구의 주요내용
- IV. 결 언

I. 서 언

이 연구는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전문가나 그렇지 않은 보통의 어른들은 모두 그들이 청소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회만 주 어지면 누구나 일가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 해 말하곤 한다. 이 경우에 그들은 지난 날 자

기들의 청소년기로 미루어 지금의 청소년을 보 는 버릇이 있고, 지내보았으니 어른들이 청소년기를 더 잘 알고 어른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전제한다. 즉, 옛 그 때의 사회문화 환경, 그 때의 자기의 문제, 사고, 이상, 규범으로 오늘 의 청소년을 보고 그런 전제에서 청소년 문제 를 해석, 판단·대처하려 한다. 과연 이 전제 가 타당한 것인가?

예컨대, 어느 신문에서 지적하는 다음의 경 우를 생각해 보자.

“더철전 버스안에서 나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호되 게 당했다(?)는 박정수씨(45)는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자 자리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인듯한 아이가 일어나

*이 논문은 본원의 1990년도 연구사업인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기초조사연구인 「청소년을 보는 성인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요약한 것임.

**공동연구자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의 한승희(책임연구원), 이용교(주임연구원) 이혜연·맹영임(연구원)임.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적 하더라'며 '그 행위가 하도 꽤심해 한마디 하자 되레 기득권 운운하며 따지고 들면서 말문을 막히게 만들더라'고 말하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이 땅에 떨어졌음을 절감했다며 긴 한숨을 쉬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지행의 괴리라는 도덕교육상의 문제로 지적한다. 박정수씨가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이 땅에 떨어졌다며 한숨을 쉰 것은 버스에 앉아 있는 학생이 당연히 따라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규범은 윗사람 공경 또는 경로이며 이는 곧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내주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박정수씨의 기준으로만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해 볼 여러 가정을 갖게 된다. 그 한 가지로서 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느냐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도덕적 사태로 인식을 할 경우, '도덕적 사태에는 행동적인 의미가 명백한 단일한 지적 규범'(예, 버스에서 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이 있다는 가정의 타당성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정수씨의 예에서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덕적 사태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흔히 '친절'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인지는 그다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덕적 사태에는 단일한 지배적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비슷한 여러 개의 규범이 갈등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의 인용은 도덕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날

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이홍우교수의 설명이다.

"사실, 버스 자리가 심각한 문제로 되는 시각에는 학생들이 버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두 정거장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서 종점에서 차를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제 그 학생이 버스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하자. 즉, '나는 이 자리에 앉으려고 버스 두 정거장을 거꾸로 걸어왔다. 누구든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나처럼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집에 가서 시험공부를 해야 한다. 보아하니, 저 신사는 집에 가서 쉬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있겠는가? 10분쯤 서 있다고 해서 뭐그리 대단한 수고가 된단 말인가'라는 것이다. 그 앞에 서 있는 신사가 보기에 이 학생은 '경노'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상 이 학생은 예컨대 '사회정의'라는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정의'도 '경노'에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그 두가지가 하나의 사태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는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이홍우, 교육의 목적과 난점, pp.207~208)

위 인용이 극명하게 보여 주듯이 아주 명백한 듯이 보이는 도덕적 사태도 어떤 인식, 예컨대, 성인의 눈 또는 청소년들의 시각에 따라 정 반대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정보화 시대 이전에 자라났던 어른들과 비교해 볼 때, 요즘 아이들은 각종 신문, 잡지, 광고 등 매스컴뿐만 아니라 TV, 비디오, 컴퓨터 등 다양하고 어지럽기까지한 정보의 환경속에서 자라난다.

어떤 국민학교 저학년의 어린이에게 풍경화를 그리게 했더니, 한 아이가 들과 산과 구름과 해를 그린 하늘에 검은 동그라미를 잔뜩 그려 놓았다. 이게 무어냐고 물었더니 '인공위성들'이라고 말하고 덧붙여 "하늘에도 이 다음에는 교통순경이 있어야 할꺼예요"라고 한 말에서 처럼 그들의 눈으로 본 미래가 어른들의 눈

으로 본 미래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들이 청소년(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연구 또한 성인들의 시각으로 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만을 밝힐 수 있음이 그 제한점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점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준거들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될 어른들이 보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은 또한 청소년들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증거라든지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연구의 방법

청소년 문제는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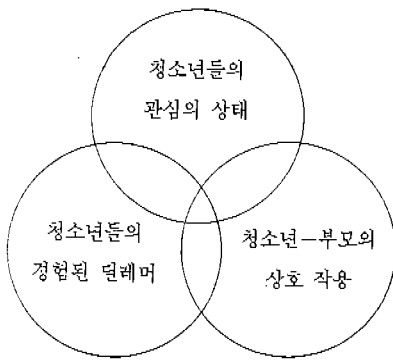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어른들이 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서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청소년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취하는 기본적인 인식론의 문제로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접근인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의 부적합성을 인정하고 총체적 접근으로서의 패러다임을 상정한다.

인간에 대한 행동과학적 접근으로서 사용되어 온 ‘원인-결과’의 관점은 청소년을 연구의 객체(대상)로 보며 가설-연역적 개념적 추상화를 연구설계의 시발점으로 하는 특징을 보인

다. 흔히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으로 보며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이미 그 기본가정에서부터 오류를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청소년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 관점을 제시한다. 총체적 관점이란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황 context, 특이성 *idiosyncracies*, 복잡성 *complexities*,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ies* 등에 주안점을 두어 탐구에서 일반적인 ‘사실’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실증주의적 접근이 탐구의 대상으로부터 연역이나 귀납을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이 총체적 접근은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경험의 ‘의미’는 상황이나 맥락에 독특한 것으로 그것은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관한 일반화된 법칙이나 사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나 통찰 *insight*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소년 이해를 위해 탐구될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관심의 상태」 「그들이 경험한 딜레마」, 「청소년-부모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

앞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이 세 영역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5개로 구분되는 문제영역; 가족문제, 학습 및 진로문제, 이성 및 성문제,



탐구영역 추출을 위한 개념모형

청소년 비행, 청소년 정신건강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5가지 영역들은 절대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영역이 추출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볼 때, 상기의 5개 영역들은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문제들을 대체로 포괄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설정된 영역과 그 설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영역	영역 설정의 배경
1) 가정교육 (부모역할 및 대화)	“문제아가 있기전에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 성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속하게 되는 환경인 가정은 그 구성원인 가족관계에 의해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는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신뢰와 사랑의 기반을 다져 주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간에 이러한 상호작용이 비교적 풍부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소가족—핵가족의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신세대들은 폭넓은 대인관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부중심의 가정에서 부모의 능력한계 안에서 자아를 형성해야 하므로 부모의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가족문제 영역에서는 부모의 역할 및 가족간의 대화(특히 청소년과 부모와의)에 초점을 맞춘다.
2) 진로·학습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의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은 상급학교에의 진학 특히 대학의 진학에 집중된다. 그러나 진로지도는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또는 취업을 할 것인지를 고르는 선택의 지도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이 진로지도의 현장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자녀의 성적만 허용된다면 일차적 진로로서 대학진학을 꿈꾸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이란 간판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갖는다. 그러나 대학의 정원, 자녀의 성적,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대학입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할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는 보다 폭넓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영역에서는 진학 및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성문제	성교육에 대하여 지나치게 폐쇄적인 한국사회에서 각종 성정보가 매스컴을 타고 무분별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동반한 왜곡된 성지식을 갖게되어 청소년 성문제를 사회적으로 유발시키고 청소년 자신들의 생활에 어두움과 고통을 남겨주며 특정한 소수에게는 치유가 불가능한 마음의 상처

영역	영역 설정의 배경
	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성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들은 성교육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때가되면 자연히 알게될 것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공연히 문제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자녀들 쪽에서 먼저 질문하기 전에는 언급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풀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청소년연구협회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의 성차이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덜 가지게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실제의 경험에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성교육이 이루어진 가정의 젊은이들은 첫경험을 뒤로 미루며 성이 금기로 되어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성숙한 판단을 내린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유해한 성정보의 홍수상태에 놓여있는 청소년의 전교육성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성문제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의 관심의 주대상들인 이성교제, 성호기심, 성충동 등에 초점을 맞춘다.
4) 청소년 비행	청소년 문제의 핵심인 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성인문제의 반영내지는 투사이다. 청소년의 현존앞에서 벌어지는 어른 문화의 행태 즉 퇴폐와 향락, 사치와 부정, 기만과 권모, 환상적 기대, 반지성적 광기는 청소년 문화의 본질이 아니라 어른 문화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 문화의 위기에서 그 책임이 기묘하게도 청소년의 문제로 투사되면서 성인문화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 본 영역에서는 소위 청소년문제 예컨대, 음주, 흡연, 폭력 등과 같은 비행을 성인의 문제로 환원하여 살펴보면서 그 예방 및 대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5)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을 전제로하는 개념이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이며, 또한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걸릴까 두려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킴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환경의 여러요인들을 원만히 대처하는 데에서 지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학교사회와 개인이 무시되는 고도산업 사회에서 자아상실과 인간성상실의 문제는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부모의 과잉보호 및 무관심,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며 또는 체벌로서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교사, 청소년들이 겪는 소외감, 스트레스 등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훼손케 하는 예이다.

조사도구 제작의 근거는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관점과 탐구영역 추출의 개념모형이었다.

앞서 추출된 5개영역에 따라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검토와 현장에서 청소년 관계업무를 다루는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5단계 반응의 형식으로 구성된 질문문항은 각 영역별로 서로

대비되는 두차원의 태도성향으로 구분된다.

아동중심←가정문제→성인중심
수단적←학습·진로→목적적
진보적←성·이성교제→보수적
개방적←문제행동→폐쇄적
허용적←정신건강→억압적

조사대상을 위한 표집방법은 유층 무선표집 *stratified simple random selection* 이다.

부모의 청소년 인식조사 설문지 회수 상황

지역	학 교	배 포 수	회 수 수	유용한수	회 수 율
호	전남고	100	85	80	87.5
	동신여고	100	96	94	
	무진중	100	98	97	
	동명여중	100	81	79	
	소 계	400	360	350	
강	춘천고	50	49	43	89.0
	유봉여고	50	46	44	
	춘천중	50	49	47	
	유봉여중	50	45	44	
	소 계	200	189	178	
영	경북사대부고	50	48	47	92.5
	경북사대부고(여)	50	50	47	
	경북사대부중	50	47	44	
	경북사대부중(여)	50	50	47	
	소 계	200	195	185	
충	남 고	100	100	96	94.5
	여 고	100	100	97	
	두성중	100	98	92	
	여 중	100	96	93	
	소 계	400	394	378	

지역	학 교	배 포 수	회 수 수	유용한수	회 수 율
수 도 권	소명여고	100	85	82	67.7
	양화중	100	63	63	
	양화중(여)	100	70	69	
	인창고	100	58	57	
	소 계	400	276	271	
합 계		1600	1414	1362	85.1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5개 권역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으로 구분하고 각각 남·녀, 중학교·고등학교로 구분하여 한 학급씩 단순 무선표집방식으로 총 1,600명을 표집하였다. 이들 선정된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시·도 청소년 관계관 및 교사들의 조력을 받았고, 질문지는 우송으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SPSS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의 주요 변인은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및 인식정도이며, 분석에 사용된 주요 통계적 방법은 빈도분포, χ^2 검증, 변량분석 등이다.

III.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이해 및 태도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하는데 있어 우선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입장(관점)을 밝히는 것이었다. 즉, 이 연구에서의 기본적인 인식론을 밝히기 위해,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를 통해 그 타당화를 전

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1. 청소년을 보는 관점에 관해

청소년들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의 시각은 어른들이 자기정당화를 위해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진단 처방하려는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이다. 이 입장에서는 흔히 세대차의 관점에서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독립적이고 이분적인 관계로서 두 집단간의 갈등을 설명하려 하며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청소년들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의 시각은 전자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어른의 문제로 환원하여 소위 「문제청소년 뒤에는 문제가정이나 문제사회가 있다」라고 하며 어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이 입장에서는 성인의 문제가 기묘한 과정(성인의 자기정당화)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로 환원된다고 설명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그들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그가 속해있는 가정과 사회를 통해 해결할 것을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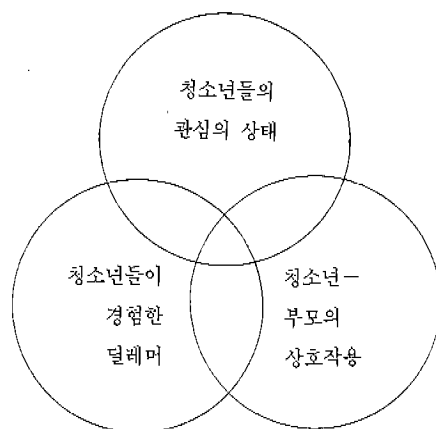
세번째의 시각은 청소년 자신이 보는 그들의 입장으로 자신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라고 주장하며, 그들 자신의 예리한 눈으로 성인사회의 위선, 기만, 허위 등을 지금까지 어른들이 찾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의 원인들을 지적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들은 성인들에게 「자신들의 목줄기를 쥐고 있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고 호소한다.

청소년 문제는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앞의 세 접근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총체적 입장」이다. 여기에서 총체적 접근이란, 지금껏 청소년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사용해진 「원인-결과」의 시각을 부정하면서,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 *context*, 특이성 *idiosyncracies*, 복잡성 *complexities*,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ies* 등에 주안점을 두어 일반화된 「사실」들 보다 「의미」들을 추구하는데 더 큰 비중을 갖는다. 예컨대, 실증주의적 접근이 탐구의 대상으로부터 「연역」이나 「귀납」을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총체적 접근은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는 것이다. 경험의 의미는 상황이나 맥락에 독특한 것으로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다고 본다. 이를 청소년 문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성인-청소년」간의 상호작용 또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이해를 위해 탐구될 문제는 「청소년들의 관심의 상태」, 「청소년들이 경험한 딜레마」 그리고 「청소년-부모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이 세 영역으로 구성된 위의 개념모형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탐구될 구체적인 문제영역은 「가족문제」 「이성 및 성문제」 「학습 및 진로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그리고 「정신건강문제」의 5가지로 추출하였다.

2. 자녀의 일상에 대한 부모의 관심에 대해

전체 부모의 1/3정도만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인식(관심)의 정도를 보인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362명의 부모 중 471명만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이 중 약 70%가 여자로서

이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보다 많은 시간과 대화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거의 모든 학부모(96.1%)들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으나 자녀들의 교과지도나 자녀문제에 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의 관심과 인식이 자녀의 학업성취 그것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아닌 상호 경쟁관계의 지수인 「석차」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의 현재 교육실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바로 부모들이 우리의 교육실태를 통렬히 지적하는 소위 「행복은 성적순이다」라는 지적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하며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갈등에서 우리의 부모들은 보다 많은 「매」와 보다 적은 「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보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취미나 오락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오락을 즐기는지 또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에는 무심하며 오직 학습과 관련된 것에만 높은 관심을 보인다. 예컨대 자녀가 읽는 잡지책 보다는 참고서의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취미나 오락에 관심을 가질 경우에도 단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좋은지 나쁜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점에서 좋고 나쁜지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자녀들의 취미나 특기 등은 적성의 일부로서 부모들이 잘 알고 함께 도와줄 때 보다 발전될 수 있음에도 부모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 한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의 미덕일 수도 있으나 자녀를 자신의 소유나 분신으로 여길 경우 이는 한 인격체로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자녀간의 합리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구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립·독립심을 중시하는데 비해 우리의 부모들은 부모에 대한 복종 및 순응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이 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태도는 본 조사에서의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앞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부모들은 부부간의 성역할을 구분하는 것 같다. 즉, 자식의 교육이나 관심에서 어머니가 더욱 그 역할을 많이 수행해야 할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에 아버지의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가정에서의 자녀의 교육 및 진로문제는 확실히 어머니의 큰 영향권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앞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자녀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효도 및 복종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케한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 키우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부모의 이러한 생각은 부모-자녀간의 세대차의 한 단면을 반영해 주는 것 같다. 많은 부모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및 행동규범을 고수하려는 반면 청소년들은 이를 벗어나려 하

는 것과 같이 어느 세대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일 것이나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의 과정속에 있는 요즈음의 부모세대들은 그 갈등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대말을 쓰기를 강요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자연스럽게 존대말을 습득하였으나 점차 핵가족화되면서 자녀들이 존대말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반말 사용은 부정적이기 보다는 아름다우며 형식에 억매이지 않아 자유스럽고 친근감을 준다고 이를 용납하는 경향도 보인다.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의 부모들(90%)은 자녀의 존대말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낀다.

어른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청소년들은 쉽게 짐작하듯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염려하고 있는 만큼 성인들 자신도 가치의 혼란을 느낀다. 이는 요즈음의 기성세대가 문화적으로 상반된 두개의 가치체계(전통사회와 현대사회)속에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가치혼란을 겪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권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성인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현재의 그들로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한다면,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부분의 부정적인 시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지불유예로서 사실상 청소년과 성인간의 갈등의 근본원인이 된다. 어쨌든 우리의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도덕성에 관해 자신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약 1/3정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본보기로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본 조사의 결과 약 1/3정도의 부모들만이 도덕적으로 자신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만일 「문제청소년 뒤에 문제부모가 있다」라는 명제가 사실이라면 위의 결과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것이다. 부모들 스스로 자신의 도덕성에 자신이 없다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많은 부모들(40.9%)이 교육상 자녀의 일기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일상생활과 생각을 담아놓은 일기는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지도를 위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부모들이 보아야 하는

가는 쉽게 답할 문제는 아니다. 본 조사에서 자녀의 일기를 보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44.5%나 되었지만, 그들의 사생활이 적힌 일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부모 위주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타당화 될 수 있다고 보는 우리 부모들의 생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외공부에 대해 부모들은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외는 부모와 자녀들이 현실에서 직접 부딪히게 되는 당면문제이다. 여러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일관되게 본 조사에서도 부모들은 과외의 여러가지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과외는 바람직 하지 않지만 치열한 입시경쟁에서의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 선택시에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려 한다.

일생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진로선택은 당연히 본인의 결정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부모의 태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다른 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89학년도 서울대 신입생들중 66.3%가 자신의 결정으로 학과선택을 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의 필요성에 대해 부모들은 필요악으로 생각한다.

이 결과는 우리의 현재 교육상황에서 재수의 필요성은 당연히 되고 있고 또 입시에 탈락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수이외의 길을 택하기가 쉽지 않은 점에서도 이해가 된다. 본 조사의 응답자가 자녀의 입시문제가 급박하지 않은 학부모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수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부모들은 교육의 가치를 수단보다는 목적에 두는 이상적인 태도 성향을 보인다.

많은 부모들이 교육은 생존경쟁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 밝혀진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부모들은 과외, 재수 등과 같은 현실적인 맥락에서는 수단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교육의 목적이나 본질과 같은 추상적 맥락에서는 목적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청소년들의 성공을 상급학교의 진학 즉, 입시경쟁에서의 합격에 두려고 하

며 그때까지 그들의 자유와 의사를 제한시키려 한다. 즉, 대학에 입학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설득하면서 심지어는 체벌까지 당연히 동원하려 한다. 부모들의 이런 시각은 학습·진로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모든 관심영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예컨대 이성교제도 대학입학 후로 유보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태도에서도 보여진다. 어쨌든 이 또한 성인위주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부를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성호기심과 성충동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관한 한 우리 부모들은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보인다.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소년과 소녀)들의 가슴속에 싹튼 사랑의 씨앗은 일종의 탈선행위로 인정을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금지당하였다.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극단적으로 금지시킨 사회적 상황이 최근에 와서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성충동 및 성호기심과 같은 일차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위행위는 부모들에게 찬·반이 갈리는 쟁점의 문제로 나타난다.

자위행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충동이 해소된다는 것은 흔히 알려진 사실이다. 청소년

들의 자위행위는 거의 보편화 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적당한 정도의 자위행위는 발달과정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위행위를 금지해야 할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자위행위를 자연적인 현상인 정상으로 보는가 또는 비정상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러 성행동이 정상·비정상적으로 규정되어 문제행동 또는 비행이라는 틀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

많은 부모들은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학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성교제가 그들의 학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가 이성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그 이성 친구의 인간됨이나 이성교제 중에 일어나는 대화 등을 연상하기에 앞서 이성교제로 인한 학업태만이나 성적부진만을 염려하는 것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자녀들의 이성교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결국은 성행위로 발전되어 「잘못」되어나 않을까 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 문제를 비행으로 보려는 문제위주로 청소년을 보려는 태도를 나타내준다. 이와함께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경우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 「성도덕규준의 이중성」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성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기에 무척 당혹스런 문제로 생각한다.

성에 관한 관심은 성인은 물론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이에 대해 많은 부모들은 성의 문제를 터부시 하거나, 점잖치 못한 일로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들이 성의 질문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은 어른들의 이중적인 성도덕 규준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수적인 시각은 때가 되면 성에 대해서는 자연히 알게 되므로 조기에 성교육을 할 경우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많은 부모들이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성」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성도덕 규준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에 대해서 남녀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남성우위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본 조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보이는데 예컨대 남녀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시대착오가 아닌 우리사회가 남녀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규준으로 본다거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딸의 이성교제를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더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또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을 많은 부모들이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는 것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결국 전통적 가치에 근거한 이런 성인 위주의 시각은 청소년들과 불가피하게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성과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위의 결과로서 단적으로 표현된다. 즉,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재량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부모의 권리로 생각하는 주요한 근거는 「그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성인 위주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는 만일 「부모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행복」과 「청소년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들의 행복」간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이 보다 타당할 것인가의 아주 미묘한 문제에 부딪힌다. 이는 어른과 청소년들이 참담케 대화하고 논쟁하여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의 성과 이성교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부모-자녀간의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디스코장 출입, 외박 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란 성인들의 시각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정작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그들을 지켜보는 성인들은 염려스럽게 보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디스코장 출입, 외박 등은

보통의 청소년들이 습관적 또는 우연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탈선행위로 볼 수 있는바 우리의 부모들은 이에 관대하게 대해 주지 않는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최근의 청소년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우리의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신문의 사회면에 커다란 활자로 자극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한 기사는 부모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모들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를 외국에 비해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에서도 보여진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는 청소년 비행의 개념이 나라마다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사실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에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는 덜 심각한 편인데도 많은 부모들은 우리의 경우 위기 의식까지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TV·잡지 등의 매스컴이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정보화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성인들과는 매스컴을 보는 눈이 크게 다르리라는 것은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1960년대 이전에는 부모, 교사, 친구...등의 순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친구와 또래 집단이 부모와 교사보다 영향력을 더 주고 있으며 TV, Radio, 영화 등 대중매체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한다. 많은 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대중매체는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될지라도 그것들을 도외시 하고는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부모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매체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발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부모들이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 청소년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행 청소년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부모들의 태도는 현재 우리 기성 세대들이 청소년들을 문제의 관점으로 보아 그 원인이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의 명백한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결함이 많다. 청소년과 관계되어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들과 성인 또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 자신에게만 두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이다. 똑같은 논리로 말한다면, 청소년들을 격리해야 한다면 그 책임이 있는 부모도 격리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나타난 부모들의 태도는 문제행동을 관대하게 보려는 허용적인 태도라기 보다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에 대해서 공부 강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고민은 많은 부분이 부모의 압력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치열한 입시 경쟁에 당면한 그들에게 부모의 공부강요는 커다란 심적부담을 주게 된다.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를 당연히 생각하는 부모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과열현상」으로 변화되며 이의 수용이 힘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되거나 심각한 경우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 매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벌자체 또는 체벌사용의 효과에 대해 찬·반의 논란이 일고 있으나, 우리의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체벌 즉, 매의 사용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체벌의 경우 역시 부모들은 마지못해 사용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식사예절에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사예절에 대한 엄격성을 강조하는 부모의 태도는 전통적인 가치지향성을 보여준다. 전통

을 위해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기성세대와 청소년들간의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자녀들에 대한 엄격한 태도 역시 그들에게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부모들의 생각은 허용적이라기보다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결정에 자녀들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결정에 자녀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당연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부모는 독립적인 자녀보다는 의존적일지라도 순종적인 자녀를 더 바라고 있는 태도를 흔히 나타낸다. 부모의 결정에 논쟁을 시작하려는 자녀보다 순종적으로 따라주는 자녀로 키우려는 것은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우리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녀가 거짓말을 할 경우 위협적으로라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나,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고치려는 방법에서 벌만을 사용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자녀들의 문제해결에는 벌이 일차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에도 보다 설득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행동에 대해서 벌과 같은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청소년의 성장발달의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보다 인내가 필요한 대화의 방법

이 바람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간의 갈등에 부모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형제간의 싸움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사회성을 기르거나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고치는데 형제들간의 갈등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 등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형제간의 싸움을 부정적으로만 취급하고 부모들이 직접 개입하여 빨리 시끄럽고 귀찮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는 자녀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갈등문제에는 허용적이기 보다는 억압적 태도를 보인다.

IV. 결 언

지금까지 청소년의 문제영역: 가정문제, 학습·진로, 성과 이성문제, 문제행동,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앞에서 계속 지적해 온 것이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청소년과 어른들을 상호 배타적으로 인식하여 청소년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어른들의 자기정당화의 논리를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으며, 그들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게 된다.

이 조사의 주요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위주의 태도」를 학습과 진로에서는 교육의 수단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성과 이성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태도」를, 청소년 문제 행동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보려하지 않는 「폐쇄적 태도」를, 그리고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억압적 태도」의 성향을 보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성인들의 시각에서 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성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우리 성인들의 왜곡된 시각의 실재를 나타내 준다고 볼 때, 앞으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점에서 잘못 보고있고 편견과 왜곡을 가지고 있는지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바로 청소년 문제를 풀기위한 어른들의 할 일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지 한 편만의 시각(성인위주)은 바람직 하지 않다. 어른의 시각과 청소년의 시각이 상호 교차하는 상호작용의 시각 즉, 총체적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바로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이해」 및 「통찰」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해야 될 어른들의 구체적인 기준은 본 연구가 밝힌 각각의 조사 결과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밝힌 조사 결과들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앞서 밝혀진 결과들은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가정의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에 구체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주장하려는 청소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청소년 문제가 어른만에 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어른-청소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겼다고 볼 때, 오직 어른만이 전적으로 책임은 없을지 모르나 그것을 풀어야 할 책임은 우선 어른 자신에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당연히 행하는 사람들, 술취하지 말고 절제하라고 하면서 술주정 하고 무절제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성은 신성하고 인격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각종 퇴폐 업소에서 성을 팔고 사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새치기, 끼어들기, 차박으로 쓰레기 버리기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제일이라고 삶을 통해 가르치는 어른들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먼저 쥐고 있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한 연구소의 보고서 결과만은 아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이 결과들은 정책 입안자 및 대중매체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 자신이므로 이들에게 직접 제언코자 한다.

부모제위

분명히 당신은 자신이 자녀의 일차적이고 가

장 영향력 있는 교사이며 자녀의 삶에 대한 이상과 중요성은 당신과 함께 시작함을 알고 있다. 당신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우선 당신은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자녀의 삶을 당신의 편견이나 소망만으로 결정지을 권리는 없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에 앞서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이나 딜레마 그리고 그들의 관심에 애착을 가지고 깊

숙히 참여하여야 한다.

당신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자녀들의 이해를 받을 수 없다. 당신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권리는 당신의 자녀가 존경하며 답기를 바라는 사람의 살아있는 모범이 되어야 함으로써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인 당신을 덕목의 사표로서 존중할 것이다.

언젠가 미국의 한 저널에 「부모의 선서」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게재된 적이 있다. 이 내용들은 정말로 우리 어른들에게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는것 같다.

〈부모의 선서〉

1. 나는 내자식이 될 수 있는 한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교육시설들이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2. 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듭니다.
3. 나는 아이들이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가정문고를 만드는 것을 돕겠습니다.
4. 나는 매일 저녁 학교에서 받은 숙제들을 모두 착실히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나는 저녁식사때 그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6. 나는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속에 어린이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책을 넣습니다.
7. 나는 신문의 기사나 텔레비전의 뉴스를 어린이와 함께 보고 그 뉴스가 우리네 생활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8. 나는 어린이의 선생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9. 나는 어린이에게 교실에서의 기술, 특히 자기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0. 나는 어린이가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고, 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참 고 문 헌

- 강지원(1990), 부모의 실천이 자녀의 비행을 막는다, 서울보호관찰소.
- 권이종(1989), 자녀지도 어떻게 해야하나, 계몽사.
- 김남선(1988), 갈 곳 없는 우리들, 사계절 출판사.
- 김성이 외(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체육부.
- 김형모(1989), 자녀문제 부모고민, 십대들의 쪽지.
- 대한가족계획협회(1984), 근로청소년 성교육지침서(지도자용).
- 대한가족계획협회(1988), 꿈나무들 이야기.
- 대한YMCA연맹(1979), 한국의 젊은이 그들은 누구인가.
- 대한YWCA연합회(1987),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실태조사.
- 박덕규(1985),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공격성, 배영사.
- 박아청(1988), 청년과 아이덴티티, 배영사.
- 서울YMCA(1986), 성교육을 위한 후기학동의 성실태조사 보고서.
- 서울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1989),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 5주년 보고서.
-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1988),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일방적 고찰.
- 심영희(1981),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15집, 한국사회학회.
- 십대들의 쪽지 편집부(1990), 십대들의 쪽지 모음집 2, 소망사.
- 이원영(1989), 부모교육론, 교문사.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전라북도(1990), 청소년의 성문제와 대책.
- 정원식(1984),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 집현전.
- 정원식 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선일보 사회부(1987),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 주왕기(1989), 약물남용, 세계사.
- 차원재(1989), 부모의 마음에 따라 자녀는 자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 청소년 교육선교회(1989), 청소년 기사자료집 I-IV.
- 청소년육성국민회의(1975), 청소년과 유희환경, 동경.
- 청소년육성위원회(1990), 청소년 백서 1989.
- 푸른나무이야기 모임(1988), 푸른나무 I, II, 도서출판 푸른나무.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 한국금연운동협의회(1990), 담배와 건강.
- 한국금연운동협의회(1990), 우리의 자녀들을 담배연기 없이 기릅니다.
- 한국금연운동협의회(1990),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8),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84), 현대가정과 자녀교육.
- 한국여성개발원(1986),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 김인희, 장인협(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

- 제협약과 한국아동의 권리”,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전국대회.
- 박명운(1990), “청소년 흡연의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원, 금연교육에 관한 세미나.
- 이명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피해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정(1989), “노는 애들”의 세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종필(1989), 대학생의 술에 대한 기대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G.M.블레어, R.S.존스 지음 김인식 옮김(1988), 청년심리학, 배영사.
- 하임 G.기너트 지음 이유경 옮김(1984), 부모와 청소년, 범우사.
- 하임 G.기너트 지음 김순희 옮김(1987), 부모와 십대의 사이, 종로서적.
- 하이래터 지음 김현수 옮김(1987), 텔레비전 없는 가정의 어린이 교육, 홍익재.
- 마리온 하워드 지음 바다 저작권회사 번역실 옮김(1990), 당신의 10대 자녀들이 성적인 고민에 빠지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 한겨레.
- 토마스 고오든 지음 이태영·황영자 옮김(1987), 아동·청소년 그들의 세계, 홍익재.
- W.휴 머실다인 지음 이종범·이석규 옮김(1989), 몸에 밴 어린시절, 카톨릭교리 신학원.
- Deutscher, I.(1970), Words and Deeds: Social Science and Social Policy. In W.J. Filstead(Ed.), *Qualitative Methodology*, Chicago: Markham.
- Erikson, E.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Strike, K.(1972),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Science on Our Concept of Man. In L.G. Thomas(Ed.), *Philosophical Redirection of Educational Research*. The Seventy-First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1989), 청소년 문제의 현상과 대책, 동경.
-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1989), 세계청년의식조사, 동경.

[첨부]

부모의 청소년 인식조사 단순집계표

I.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수치는 백분율 ; 실수 1,362명)

1. 응답자의 거주지역

① 특별시 13.9 ② 직할시 37.5 ③ 기타시 48.6

2. 응답자의 성별

① 여자 64.8 ② 남자 35.2

3. 응답자의 연령

① 35-39세 14.0 ② 40-44세 40.7 ③ 45-49세 29.2 ④ 50-54세 12.7 ⑤ 55세이상 3.4

4. 응답자의 최종학력(단, 중퇴자는 하위학교의 졸업으로 표시바랍니다)

① 국·중졸 35.9 ② 고졸 45.2 ③ 대졸(이상) 18.9

5. 응답자의 직업

① 사업(상업) 12.2 ② 교사(교수) 9.5 ③ 주부 45.8 ④ 회사원 15.4

⑤ 공무원 11.2 ⑥ 농업 1.9 ⑦ 기타 4.1

6. 응답자의 가족구조

① 부부+미혼자녀 55.0 ② 편부+미혼자녀 8.8 ③ 편모+미혼자녀 6.0

④ 부모+부부(본인)+자녀 21.5 ⑤ 기타() 8.7

7. 응답자의 자녀

8. 이 설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

(1) 성별 : ① 여 51.1 ② 남 48.9

(2) 나이 : 만()세

(3) 재학학교 : ① 중학교 49.6 ② 고등학교 50.4

※ 다음의 질문에서 “자녀”란 여러 자녀중에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다음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부모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의 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녀와 함께 전자오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8.3 ② 없다 81.7
2. 자녀의 하루 TV시청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82.6 ② 잘 모르겠다 17.4
3.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74.4 ② 잘 모르겠다 25.6
4. 자녀의 담임선생님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66.0 ② 잘 모르겠다 34.0
5. 자녀의 학급 석차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96.1 ② 잘 모르겠다 3.9
6. 자녀문제에 관해 교사와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44.8 ② 없다 55.2
7. 자녀의 교과지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40.7 ② 없다 59.3
8. 자녀의 특기나 취미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73.1 ② 잘 모르겠다 26.9
9. 자녀와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시 대화로 해결해 본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55.1 ② 없다 44.9
10. 자녀가 사용하는 참고서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56.5 ② 잘 모르겠다 43.5
11. 자녀가 즐겨보는 잡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34.7 ② 잘 모르겠다 65.3
12. 자녀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즐겨 듣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63.4 ② 잘 모르겠다 36.3
13. 자녀의 생일은 꼭 차례주는 편입니까?
- ① 그렇다 76.1 ② 그렇지 못하다 23.9
14. 자녀를 위한 책(명작, 잡지, 만화 등)을 사다준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55.4 ② 별로 없다 44.6
15.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72.5 ② 없다 27.5

Ⅲ. 다음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응답지의 번호에 <보기>와 같이 그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응 답 지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 르 겠다	아니 것 같다	확실 히아 니나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는 문항에 대하여					
1. <u>‘확실히 그렇다’</u> 고 생각하면	①	2	3	4	5
2. <u>‘그런 것 같다’</u> 고 생각하면	1	②	3	4	5
3. <u>‘잘 모르겠다’</u> 고 생각하면	1	2	③	4	5
4. <u>‘아닌 것 같다’</u> 고 생각하면	1	2	3	④	5
5. <u>‘확실히 아니다’</u> 고 생각하면	1	2	3	4	⑤

자녀지도

-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
① 33.2 ② 25.9 ③ 6.5 ④ 18.2 ⑤ 16.2
- 자녀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
① 46.2 ② 34.1 ③ 6.0 ④ 9.9 ⑤ 3.8
-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59.8 ② 30.0 ③ 5.6 ④ 3.5 ⑤ 1.1
-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43.7 ② 30.7 ③ 8.4 ④ 14.0 ⑤ 3.3
- 자식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① 58.5 ② 31.5 ③ 3.5 ④ 4.2 ⑤ 2.3
- 자식은 부모에게 존대말을 써야 한다.
① 61.5 ② 23.3 ③ 6.5 ④ 7.9 ⑤ 0.8
-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많은 부문을 이해할 수 없다.
① 23.9 ② 48.9 ③ 11.5 ④ 11.7 ⑤ 4.0
- 아동의 권리는 책임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① 37.4 ② 32.7 ③ 9.2 ④ 16.2 ⑤ 4.6
- 자식간의 편애는 어쩔 수 없다.
① 7.6 ② 18.9 ③ 15.4 ④ 26.1 ⑤ 32.0

10.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 ① 29.7 ② 33.8 ③ 9.1 ④ 21.5 ⑤ 5.8

11. 부모에 대한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고수되어야 한다.

- ① 54.8 ② 31.6 ③ 8.4 ④ 3.6 ⑤ 1.6

12.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한다.

- ① 39.1 ② 39.3 ③ 10.4 ④ 7.6 ⑤ 3.6

13. 도덕성에 관해 자녀들에게 자신이 있다.

- ① 32.5 ② 27.9 ③ 27.8 ④ 9.7 ⑤ 2.1

14. 아들(또는 딸)의 일기는 교육상 보아야 한다.

- ① 14.0 ② 26.9 ③ 14.5 ④ 26.1 ⑤ 18.4

학습과 진로

1.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위해 과외공부는 당연하다.

- ① 13.0 ② 27.1 ③ 16.7 ④ 27.1 ⑤ 16.2

2. 자녀의 진로선택을 그들에게 맡길 수 만은 없다.

- ① 4.4 ② 15.5 ③ 6.4 ④ 37.7 ⑤ 36.0

3.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재수는 필요하다.

- ① 11.3 ② 23.6 ③ 19.8 ④ 27.4 ⑤ 17.9

4. 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보다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

- ① 13.8 ② 19.2 ③ 10.9 ④ 27.4 ⑤ 28.6

5.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 ① 23.7 ② 38.3 ③ 11.5 ④ 19.1 ⑤ 7.3

6. 자녀교육을 위해 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 ① 33.6 ② 34.1 ③ 8.3 ④ 17.3 ⑤ 6.8

7. TV의 지나친 시청이 자녀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

- ① 62.2 ② 23.7 ③ 3.9 ④ 5.2 ⑤ 5.0

8. 학교의 숙제는 많을수록 좋다.

- ① 11.3 ② 19.8 ③ 13.1 ④ 40.9 ⑤ 14.7

9. 자녀의 특기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 ① 49.0 ② 35.6 ③ 8.5 ④ 5.5 ⑤ 1.4

10. 자녀교육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

- ① 7.9 ② 20.8 ③ 13.5 ④ 36.2 ⑤ 21.6

11.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 ① 5.6 ② 8.1 ③ 7.0 ④ 33.8 ⑤ 45.4

12.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

- ① 29.8 ② 36.9 ③ 10.2 ④ 16.2 ⑤ 7.0

성과 이성교제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제되어야 한다.

- ① 32.7 ② 40.0 ③ 10.0 ④ 11.6 ⑤ 5.1

2. 청소년의 성충동은 억제해야 한다.

- ① 44.2 ② 32.6 ③ 11.5 ④ 7.3 ⑤ 4.3

3.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니다.

- ① 24.8 ② 19.0 ③ 22.5 ④ 23.1 ⑤ 10.5

4. 건전한 이성교제라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된다.

- ① 26.9 ② 32.3 ③ 8.5 ④ 21.7 ⑤ 10.6

5.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큰 문제가 된다.

- ① 40.1 ② 31.8 ③ 12.6 ④ 10.0 ⑤ 5.5

6.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

- ① 13.6 ② 26.2 ③ 14.8 ④ 28.5 ⑤ 17.0

7.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

- ① 44.3 ② 23.9 ③ 17.0 ④ 9.0 ⑤ 5.7

8.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 될 수 없다.

- ① 74.2 ② 10.9 ③ 4.8 ④ 3.1 ⑤ 7.1

9.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은 시대착오가 아니다.

- ① 8.6 ② 13.7 ③ 12.6 ④ 36.9 ⑤ 28.3

10. 성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에 당혹스럽다.

- ① 21.4 ② 37.0 ③ 12.6 ④ 21.0 ⑤ 7.9

11. 메가되면 자연히 알게되므로, 조기의 성교육은 공연히 문제를 발생시킨다.

- ① 15.7 ② 23.6 ③ 16.2 ④ 30.1 ⑤ 14.5

12. 딸의 성교육은 어머니가 할 수 없다.

- ① 2.1 ② 5.3 ③ 6.5 ④ 35.4 ⑤ 50.7

13. 중·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은 불필요하다.

- ① 10.6 ② 19.4 ③ 23.3 ④ 29.1 ⑤ 17.5

14.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
 ① 24.0 ② 27.3 ③ 16.6 ④ 24.4 ⑤ 7.6

문제행동

1.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① 72.1 ② 16.4 ③ 2.9 ④ 3.8 ⑤ 4.8
2. 청소년의 디스코장 출입은 억제되어야 한다.
 ① 60.9 ② 24.1 ③ 4.8 ④ 7.3 ⑤ 2.9
3. 본드 흡입은 대다수 청소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① 18.0 ② 17.9 ③ 13.4 ④ 29.4 ⑤ 21.3
4.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외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① 63.4 ② 18.7 ③ 4.0 ④ 10.0 ⑤ 4.0
5. 최근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① 63.1 ② 29.4 ③ 3.9 ④ 2.3 ⑤ 1.3
6.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점차 심각해 질 것이다.
 ① 51.6 ② 32.9 ③ 9.7 ④ 3.4 ⑤ 2.4
7.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는 외국에 비해 큰 문제가 없다.
 ① 5.5 ② 18.9 ③ 22.4 ④ 32.1 ⑤ 21.1
8. 청소년의 비행은 가정보다 사회의 책임이다.
 ① 16.2 ② 24.3 ③ 13.1 ④ 31.6 ⑤ 14.7
9. TV·잡지 등의 매스컴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① 45.2 ② 36.6 ③ 10.1 ④ 5.8 ⑤ 2.3
10. 청소년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된다.
 ① 47.6 ② 30.6 ③ 7.4 ④ 10.4 ⑤ 4.0
11. 선량한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행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① 37.4 ② 30.1 ③ 13.7 ④ 13.4 ⑤ 5.4

정신건강

1.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는 부모로서 당연하다.
 ① 34.7 ② 40.0 ③ 6.8 ④ 15.4 ⑤ 3.2
2. 자녀에게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체벌)의 사용은 필요하다.

- ① 24.4 ② 29.7 ③ 10.7 ④ 25.3 ⑤ 9.8
3. 식사예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엄격해야 한다.
 ① 29.5 ② 33.2 ③ 10.6 ④ 22.8 ⑤ 3.8
4. 자녀는 부모의 중요한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① 22.8 ② 36.9 ③ 12.8 ④ 23.1 ⑤ 4.3
5. 거짓말하는 버릇은 위협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한다.
 ① 51.0 ② 30.0 ③ 7.3 ④ 8.9 ⑤ 2.8
6.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는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
 ① 31.3 ② 38.0 ③ 11.6 ④ 14.9 ⑤ 4.2
7.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할 수 없다.
 ① 25.1 ② 35.2 ③ 10.5 ④ 21.4 ⑤ 7.8
8. 시험기간중의 각성제 복용은 허용되어도 좋다.
 ① 3.4 ② 3.1 ③ 3.9 ④ 20.6 ⑤ 69.0